



15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대한민국의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전주시 미래교육 방향 모색

대한민국의교육감협의회 총회... 천호성 전북교육감 “교육 연대·전북유학 협력” 강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전주에 모여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과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15일부터 16일까지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대한민국의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북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다. 또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새 임기를 시작한 교육감들을 축하하고 미래교육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와 지역 간 상생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된 곳으로, 그 철학 가운데 ‘유무상자(有無相資)’는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자원이 된다는 의미”라며 “17개 시도교육청이 유무상자의 정신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교육이 직면한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육의 핵심 정책인 전북유학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천 교육감은 “전북은 K-컬처를 이끄는 전통문화와 예술, 청정한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교육적 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북으로 보내달라. 전북의 자연과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래교육 정책과 시도교육청 간 공동 현안, 교육협력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오상근 기자



부안고, 미래 리더 Q-insight 성과 발표회

부안고등학교(교장 김학전)에서는 넓게 보고, 깊게 묻고, 따뜻하게 실천하는 리더를 기르기 위한 Q-insight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그동안 아침 조회와 종례 시간 소록도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질문하는 선도학교 역점사업인 Q-insight와 창의적 체험활동 데이터로 보는 세상, Q-login 프로그램을 연계한 탐구 활동 성과를 공유한 자리이다. 학생들은 평소 독서와 신문 읽기를 통해 사회 현상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탐구하며 얻은 통찰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발표를 넘어 질문-탐구-통찰-실천으로 이어지는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탐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며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함께 키웠다. 연구부장은 “학생들이 좋은 질문에서 탐구와 성찰을 거쳐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력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대학 연계 ‘실험실 마스터 클래스’ 운영

전주여고, 전북대·전주대 등 도내 대학 4곳과 연계



전주여자고등학교는 15일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의 하나로 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국립군산대학교·우석대학교와 연계한 STEM 실험실 마스터 클래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 역량, 진로 설계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 이날 김유진 전주여고 교장은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을 만나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과 고교·대학 연계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기관은 지역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심화된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여고는 이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전북대학교와 함께 해외 교수진이 참여하는 후속 프로그램인 STEM Global Lab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 시각을 갖춘 실험·실습 중심의 심화 탐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키운다

전북대, 부안군과 협약... ‘5급 3특 공유대학’ 기반 산학협력 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손잡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견인할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고도화에 본격 나섰다. 전북대는 지난 1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양오봉 총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협력을 위한 지자체·대학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학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성장하는 공동 교육 및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북대와 부안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에 필요한 산학협력 분야 공동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부안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전략산업 등 핵심 성장엔진과 전북대의 우수한 연구·교육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실무형 핵심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역 기업 및 산업계와 연계한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



재 양성에 필요한 산학협력 분야 공동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부안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전략산업 등 핵심 성장엔진과 전북대의 우수한 연구·교육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실무형 핵심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역 기업 및 산업계와 연계한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

고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의 연구 성과와 인적 자원이 부안군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고, 이렇게 성장한 지역 기업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인재를 정착시키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교육·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등 공유 인프라 확충,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양과인) 5급 3특 공유대학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을 부안군의 핵심 성장 동력과 긴밀히 연계해, 지역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산학협력의 성공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전을 실현하고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부안=김석진기자

방학 중 초등 돌봄·교육 우수모델 선정

진안·순창·부안군,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국비 총 12억1379만원 확보

진안과 순창, 부안 등 전북지역 3개 기초지자체가 교육부의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 맞춤형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교육부가 추진한 2026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사업 공모에서 진안군과 순창군, 부안군이 선정돼 총 12억1,379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 돌봄과 교육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에서는 모두 17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전북은 가장 많은 3개 지역이 포함돼 지역 기반 돌봄·교육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지역에는 진안군 2억7,900만원, 순창군 4억원, 부안군 5억3,400만원 등 총 12억1,379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4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학교 강사 파견과 지역기관 연계 프로그램, 지역 체험활동, 권역별 공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순창군은 방학 중에도 학기와 같은 수준의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급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진안과 순창, 부안 등 전북지역 3개 기초지자체가 교육부의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 맞춤형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지역사회 연계형과 미래역량형, 체험 학습형, 캠프형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운영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 기반 돌봄·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천호성 교육감은 “전국 공모에서 전북이 가장 많은 3개 지역이 선정된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구축해 온 지역 연계 돌봄·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교육·돌봄 지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전북교육청, 학부모 대상 학교생활기록부 이해 교육 운영

도내 14개 시군서 무료 진행... 학생 성장 지원 위한 활용법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센터장 장걸)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생각부터 바로 알고 준비하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단순한 입시 자료가 아닌 학생의 성장 과정과 학교생활을 기록하는 교육자료로 이해하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시기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로 탐색을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북교육청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맡아 학교생활기록부의 구성과 이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차이, 과목별 기재 내용, 학생 성장 과정에서 학부모의 역할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

이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예비 중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교육 일정에 따라 3차에 걸쳐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1차는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차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3차는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접수하며, 전북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이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걸 학부모지원센터장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성장 과정을 담아내는 중요한 교육자료”라며 “이번 교육이 학부모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로 탐색을 함께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김제시의원 초청 교육현안 간담회

김제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 발전과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김제시의회와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범)은 15일 김제청의예슬라텍공간 다움에서 제10대 김제시의회 의원을 초청해 교육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장자 김제시의회 의장과 김주택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김제시청 관계자, 김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협의회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김제교육협력사업 추진 현황과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준비 상황 등 주요 교육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학부모협의회가 제안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식식 지원을 비롯해 학생 지원과 진학·진로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상근 기자